

Eugene's FICC Update (2023.4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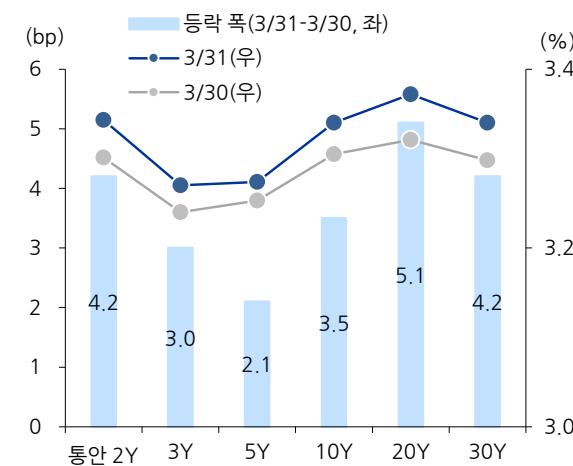

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		3/3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270%	3.0	11.0	-45.2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40%	3.5	13.0	-39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 bp)	7.0	6.5	5.0	0.8
	3년 국채 선물(KTB)	104.88	-18.0	-38.0	143
	10년 국채선물(LKTB)	113.85	-45.0	-125.0	39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023%	-10.7	24.8	-39.6
	미국채 10년물	3.470%	-8.1	9.5	-40.8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 bp)	-55.4	-57.9	-40.1	-54.2
	독일국채 10년물	2.289%	-8.0	16.6	-27.6
	호주국채 10년물	3.299%	-5.6	8.1	-75.2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30년 입찰 부담과 미국 PCE 경계감.
- 전일 장 종료 후 발표된 국고채발행계획에서 발행량이 15조원으로 늘은 가운데, 월요일 국고 30년 입찰을 앞둔 부담감으로 금리 상승세 나타남.
- 5월 FOMC 금리 인상과 동결이 팽팽한 가운데, 미국 2월 PCE 물가와 개인소비지출 발표가 추가 인상을 정당화해줄 수 있을지 여부에도 주목하며 금리 상승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2월 PCE 물가 둔화로 인플레이션 우려 경감.
- 미국 2월 PCE가 5.0%(Y)를 기록했고, 근원 PCE 물가도 4.6%로 월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및 긴축 우려 줄어듬. 개인소비지출 역시 전월대비 대폭 줄어든 0.2% 증가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지지함.
- 금주 미국, 독일 등 주요국 PMI와 호주 기준금리 결정, 미국 구인구직 보고서 및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. 미국 5월 인상 여부와 함께 고용 보고서 주목할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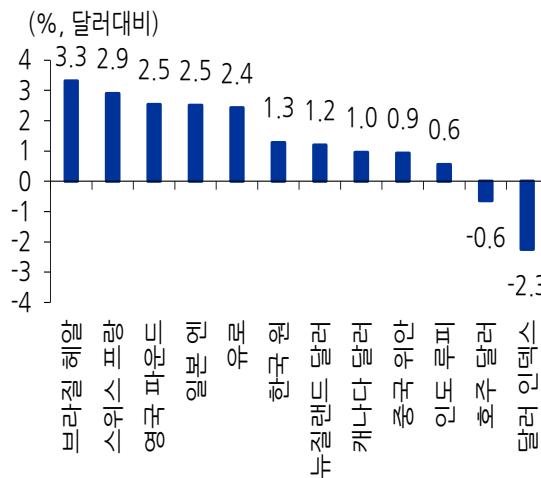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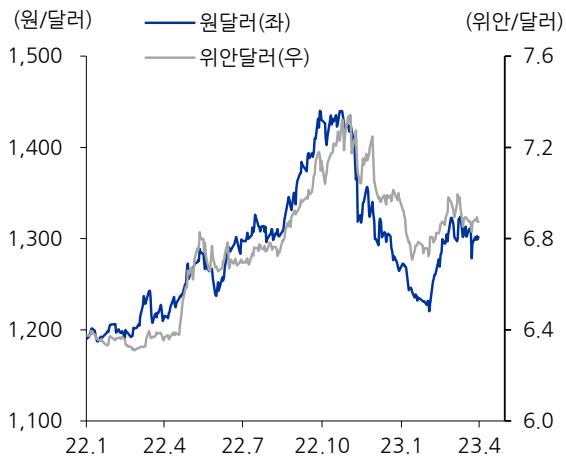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3/31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01.90	0.2%	0.6%
	달러지수	102.60	0.4%	-0.5%
	달러/유로	1.084	-0.6%	0.8%
	위안/달러(역외)	6.87	0.0%	0.0%
	엔/달러	132.76	0.0%	1.6%
	달러/파운드	1.233	-0.4%	0.8%
상품	해알/달러	5.06	-0.6%	-3.5%
	WTI 근월물(\$)	75.67	1.7%	9.3%
	금 현물(\$)	1,969.07	-0.6%	-0.5%
	구리 3개월물(\$)	8,993.00	-0.1%	0.8%
				7.4%

3월 주요국 통화가치 등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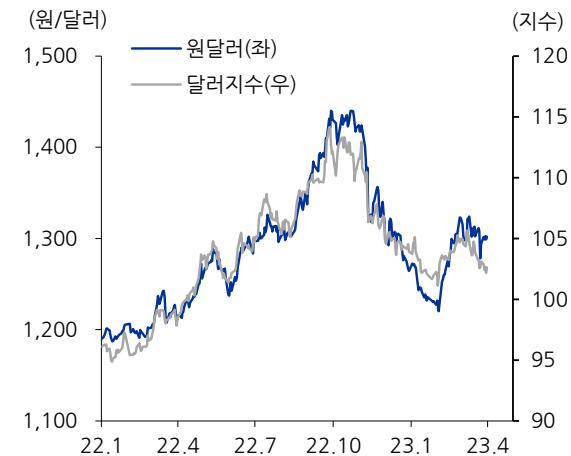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+2.90원 상승한 1,301.90원에 마감.
- 간밤 미국 은행권 우려 완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는 하락 출발. 이후 오전 중 발표된 중국 3월 PMI가 호조를 보이면서 위안화 강세에 연동, 단숨에 1,289원 선까지 급락.
- 중국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51.9로 전월비 하락했지만 예상치(51.5) 상회. 비제조업 PMI는 58.2를 기록해 예상치(54.3)를 대폭 상회했음.
- 그러나 오후 들어 위안달러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원달러도 이에 연동되며 낙폭을 모두 반납, 전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. 분기말 결제 수요 유입되면서 반등 폭 더 키운 것으로 보임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지난주 금요일 달러 인덱스는 +0.4% 상승한 102.60 기록. 2월 균원 PCE 물가는 +0.3%(M), +4.6%(Y)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(+0.4%, +4.7%). 헤드라인 물가도 +0.3%(M), +5.0%(Y) 상승해 전월비 상승세 둔화. 그러나 아직 연준의 긴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는 인식이 컸음.
- 한편 2월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-0.1%(M) 감소에 그치면서 지난달 급등(+1.5%)을 감안하면 양호하게 유지. 그러나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최근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.
- 주말간 발표된 한국 수출은 -13.6% 감소해 6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. 무역수지는 -46.2억 달러 적자로 조금씩 개선되는 중.